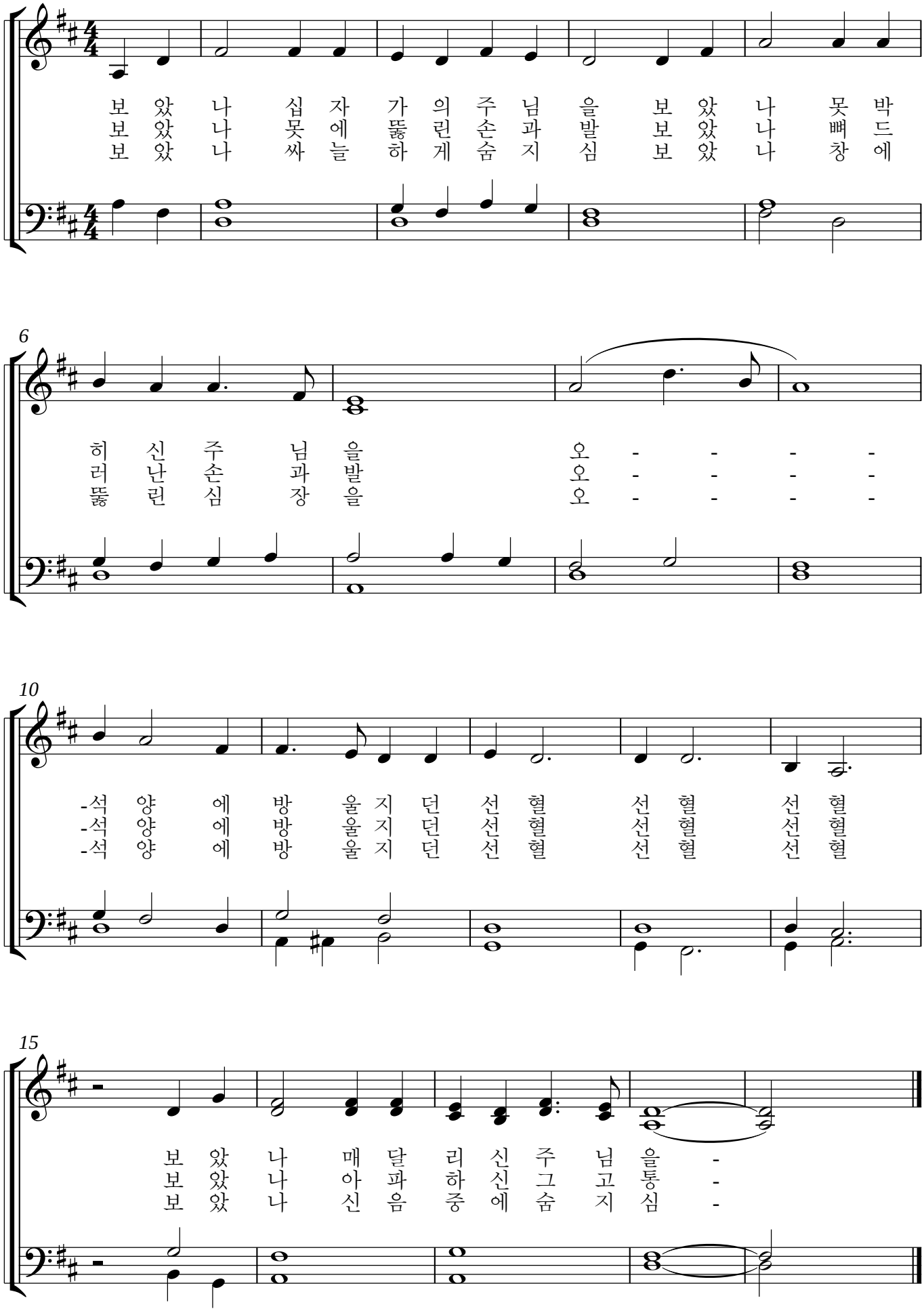121.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